

‘SK지오센트릭’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 목표

친환경 이미지+사회적 가치 담아
페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협력·개발
연간 90만톤 페플라스틱 처리 계획
2025년까지 친환경 소재 5조 투자
“ESG경영 기반 친환경 주도할 것”



SK 종합 화학이 ‘세계 최대 규모 도시 유전 기업’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SK지오센트릭(SK geo centric)’으로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다.

SK종합화학은 8월31일 나경수 사장 등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브랜드 뉴 데이(Brand New Day)’ 행사를 열고 새 사명과 성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SK지오센트릭은 1972년 대한민국 최초로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가동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SK종합화학이 새롭게 만든 사명이다. 이름뿐만 아니라 사업 모델까지 ‘탄소에서 그린으로’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 위상 확보

SK종합화학이 출범 후 10년 만에 사명 변경과 사업구조 재편을 전격 단행한 이유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강조해 온 ‘딥 체인지(Deep Change·근본적 변화)’와 맞닿아 있다.

최태원 회장은 ESG(환경·사회·지배 구조)를 축으로 한 그룹 전반의 혁신을 주문하며, “기업 이름은 근본적인 변화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이 8월31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브랜드 뉴 데이’ 행사에서 파이낸셜 스토리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새로운 사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 SK지오센트릭

를 추구할 수 있고 친환경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현재의 사회적 가치와 맞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지구와 토양을 뜻하는 ‘geo’와 중심을 뜻하는 ‘centric’을 조합해 지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페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은 이날 “SK지오센트릭의 파이낸셜 스토리 핵심 방향은 ‘지구를 중심으로 둔 친환경 혁신’이라며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페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를 뽑아내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 사장은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1차 목표로 SK지오센트릭의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에 해당하는 연간 90만 톤의 페플라스틱을 처리

할 설비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며, 이에 더해 친환경 소재 확대 등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2027년까지는 SK지오센트릭의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100%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 톤을 직·간접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는 해마다 전 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페플라스틱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나 사장은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성장률은 12% 수준이며, 2050년 600조 원 규모의 페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성장성이 매우 높다”며 “2025년에는 친환경 및 재활용 영역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상회하는 600억 원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를 창출해 재무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린 컴퍼니’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라스틱 재활용 순환경제 체제 구축

SK지오센트릭은 ▲차세대 재활용 기술 확보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3R 솔루션 개발 ▲친환경 소재 확대 및 친환경 원료 도입 등 플라스틱 생산부터 분리수거 후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내·외 파트너들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해 후처리 기술은 자체 개발 중이다.

특히, 오염된 단일재질과 복합재질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용매 추출, 해중합 및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해외 파트너들과 기술 도입, 합작법인 설립, 자본투자 등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에 공장을 신증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자체 및 기존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등을 통해 페플라스틱 수거·선별 단계부터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 전 과정에 참여해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페트(PET), 복합소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나 사장은 “페플라스틱 이슈는 이를 가장 잘 아는 화학기업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따라서 순환경제형 사업 모델은 SK지오센트릭의 파이낸셜 스토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자 새로운 성장 방안”이라며 “ESG 경영을 기반으로 페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친환경 확산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 개념도. 사진제공 | 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 개발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 톤 씩 이산화탄소 저장

현대중공업그룹이 탄소중립시대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해상 플랫폼 개발에 성공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8월 31일 계열사인 현대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이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한국형 해상용 이산화탄소(CO₂) 주입 플랫폼’을 개발하고, 노르웨이 선급인 DNV로부터 기본 승인(Approval In Principle)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은 육상에서 포집 및 고압 액화돼 운반선이나 파이프라인을 통해 해상으로 운송된 이산화탄소를 해저 지중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중공업 등 3사는 2025년부터 동해가스전에 연간 4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를 지중 저장하는 것을 목표로 이 플랫폼을 개발했다. 생산이 곧 종료될 예정인 동해가스전에는 연간 40만 톤 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저장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오랜 기간 쌓아온 현대중공업의 차별화된 해상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번 해상용 이산화탄소 주입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앞으로 해양 분야의 탄소중립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HMM 육상노조, 찬성 98%로 파업 가결 오늘 사측과 마지막 교섭 후 파업 결정

HMM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이 가결됐다. 8월 31일 HMM에 따르면 육상노조가 30일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조합원 791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률 97.88%로 가결됐다.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까지 파업을 가결하며, HMM 양대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육·해상 노조는 8월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육상노조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파업은 가결 되었지만 노조는 1일 진행되는 마지막 교섭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HMM 파업 여부는 1일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HMM이 약 3주간 파업하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6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

오늘의 날씨			1일(수)		
서울 60/70	인천 70/70	춘천 30/80	25	21	19
20	25	24	강릉 30/80	대전 80/80	전주 30/60
19	23	24	22	27	28
광주 60/60	대구 30/70	부산 20/20	24	23	24
29	29	28	창원 60/6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4	25	최저	29	32	최고기온
		최고기온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54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성수 광고국장 이승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사진부장 고홍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일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LG에너지솔루션, “올해 상장 여부 10월까지 결정”

잇따른 배터리 화재로 최대 위기
최근 상장예비심사 기간연장 신청

LG에너지솔루션은 제너럴모터스(이하 GM) 쉐보레 볼트 EV(전기차) 리콜 조치에 따른 기업공개(IPO) 일정 연기 우려와 관련해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배터리 화재로 지난해 말 분사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30일 “당사가 추진 중인 IPO와 관련해 GM 리콜 조치 방안,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올해 안에 상장 완료를 목표로 IPO를 계속 추진할지에 대해 10월까지 결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월 8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고, 8월 중순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해 오는 10월 증시에 입성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8월 20일(미국 현지시간) GM이 약 10억 달러(약 1조1835억 원) 규모의 쉐보레 볼트 전기차(EV) 7만 3000대 추가 리콜 계획을 밝혔고, 결국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분부예비심사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거래소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예비심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가 장착되는 쉐보레 볼트 EV. 사진제공 | GM

사 기간은 원칙상 45거래일이다.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발생해 추가 심사기간이 필요한 경우 예비심사를 청구한 회사의 요청이나 거래소의 판단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콜과 관련해 당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최종 리콜 조치 방안이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며 “3사는 리콜 제품에 대한 상세 분석 및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품 이상 여부를 빠르게 파악하고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개발하여 곧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GM은 당사와 10년 이상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온 중요한 고객사로, 양측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기반으로 이번 리콜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공고한 협력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리콜 사태로 인한 LG에너지솔루션의 3분기 추가 충당부채(리콜 비용)는 3사 공동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일(수) 음력: 7월 25일 문외: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망目を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우월과왕하기 쉬운 날이다.	기회를 얻어서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모든 일에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겠고 특히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계획하면 더욱 길하겠으니 자기 페이스대로 나아가라. 급한 마음을 달래려면 개미생과 대화하라.	소원하는 일은 비록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는 하겠지만 호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겠다. 작은 돈은 들어오겠지만 지출도 심해서 수중에 돈이 남아 있을 사이가 없겠다. 낭비를 줄이는 게 좋겠다. 손재수와 망신수를 조심하라.	친구나 동료 간에 자칫하면 우의가 갈릴 수 있으니 내 주장을 굽히고 상대방의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며 양보한다는 자세로 생활한다면 모든 액을 피할 수 있겠다. 가정은 잘 보살펴라. 이성문제, 탈선도 심하라.	남에게 원망을 듣기 쉬운 때이니 매사에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당장은 불안한 생각이 들겠지만 현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태도가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서두르지 말고 서서히 움직여라.	현실을 수용할 수 있는 금전적, 정신적 측면이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시기이므로 안정을 갖고 대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자세가 요망 된다. 꿈과 이상이 현실화되려면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그저 먹고 자고 개기고 싶은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정성을 다하면 작은 소원 성취는 되겠지만 큰 소원은 아직 성취될 때가 아니다. 무리한 투자나 확장을 삼가하고 수입을 늘리기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 소극적 행동을 취하라.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지게 발휘하는 날이다.	소가 등을 비빌 언덕을 만나는 대길한 운으로 널리 동지를 구할 수 있으며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유순한 자가 정당한 지위를 얻어 강력한 힘을 가지니 호응하는 자가 많아 기세가 등등해지는 운이다. 추진력이 대단한 날이다.	매사 아직 적극적으로 진행시킬 단계가 아니다. 큰 계획이나 투자할 일이 있거든 재고하기 바란다. 기대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겠다. 매매 운은 급하게 서두르면 손해는 보겠지만 매매는 이루어진다. 오늘은 쥐 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결단을 잘못 내려서 실패하기 쉬우니 다시 숙고하라. 이성과 함께 하는 사업은 불리할 뿐만 아니라 영혼한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지 않아 고민하겠으나 참고 견디면 나아지겠다. 검정색 상의를 입은 사람을 조심하라.	이일 제일 손대지 말고 안정된 직업이나 직장에서 꾸준히 노력하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은 힘들겠으나 작은 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좋은 운이다. 이동은 금물이며 이라도 뒤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성관계를 조심하라.